

사순절 제 5 주일

기도서 P. 270 B해

제1독서(에 레 31, 31-34)
제2독서(히 브 5, 7-9)
복 음(요 한12, 20-33. 3. 5. 33)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김 봉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성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천주교구청 내 (전화 5098)

□ 강 론



나의 십자가

권 이 복 신부

삶이 무엇인지는 유명한 철학자나 문학가들의 논단에 가 아니라 복주알을 굴리는 가난한 아낙네의 조용한 눈빛에서 더욱 잘 깨달을 수가 있다. 그녀는 고통과 행복을 논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그들과 가까이 지내다보니 그 누구보다 그들을 잘알게 됐다. 그녀는 고통이 오면 조용히 맞이한다. 그리고 그것이 떠날 때까지 불평없이 같이 산다. 6·25 때 큰아들을 잃은지 한 달 후에 작은 아들마저 잃었으나, 자기는 살아왔다. 지난 여름 마지막 남은 막둥이가 신부님과 같이 하지수련회에 갔다가 익사체가 되어 돌아왔을 때에도 지도신부의 면살을 잡고 통곡하기 보단 조용히 주님께 맡겨 드렸다. 마치 10여년 전 딸아이의 소아마비에 40년간 고이 걸려온 까만 머리카락을 미련없이 잘라 바쳤듯이 말이다.

이젠 세상의 어떠한 고통과 시련도 그녀를 괴롭히지 못한다. 그녀의 가슴깊이 새겨진 하느님을 죽이지 않는 한 세상의 모든 고통은 바다 표면의 파도의연 아무것도 아니다. 그녀는 이제 절망할 줄을 모른다. 그녀에게 항상 희망이 있다. 그녀는 60년을 살아오면서 깊이 체험했던 것이다. 두 아들을 함께 잃었을 때의 고통, 딸아이가 절름발이가 되었을 때의 고통, 막내아이가 익사체가 되어 돌아올 때의 고통은, 아니 위의 모든 고통을 다 합해도 천국을 부정하고 하늘을 향해 두 주먹을 불끈 쥐었을 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희망없는 삶, 이는 죽은 삶이요 지옥의 삶임을 그녀는 깊이 체험했던 것이다. 그녀는 고통을 통해 행복을 알았고 절망을 통해 희망의 고귀함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극한 눈매와 침착한 태도로 그들을 맞이한다. 그 어딘 고통과 시련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 '나의 십자가'인데 어찌란 말인가!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다.

십자가는 복은 '나' - 교만하고 게으르고 위선적이며 세속적 명예와 부, 쾌락과 안일만을 찾던 '나'를 서서히 썩히운다. 그리고 영원을 갈망하는 새 사람을 싹 틔운다. 고통은!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되는 가련하고 비참한 존재임을 깨우쳐 준다. 고통을 통하여 고통에서 해방시키시는 '파라독스'를 깨우쳐 준다.

지금 이시간, 고통에 허덕이는 교형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주님의 마음처럼 산란하시겠지요? 그런데 그 고통의 십자가는, 당신이 저야만 합니다. 그 누구도 -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도, 남편이나 부인까지도 대신 저 줄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어서 기운을 내어 십자가를 등에 매세요. 그리고 저만치 앞서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무겁고 고통스러우시겠지만 그 십자가는 당신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자! 기운을 내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둔울동 천주교회 보좌신부)



주께 나아가시다!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가톨릭 공동체의 성가집>은 이 미국노래를 「주께 나아가시다」라는 입당 성가로 옮겨 놓았다. 이 성가집은 성바로 출판사가 대구 베교구의 검열을 받아 퍼냈고, 성가의 한국말 가사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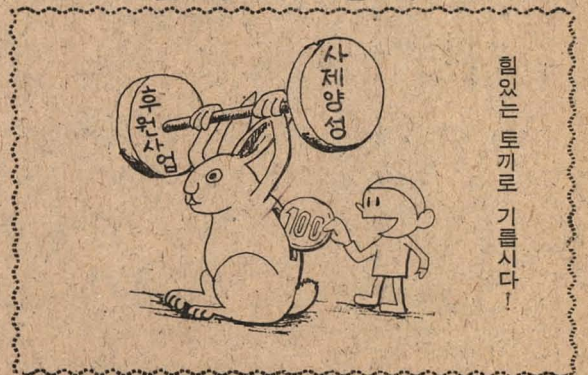
1. 주께 나아가시다.
주께 나아가시다.
주님앞에 나아가시다.
오, 마음속 깊이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시다.
2. 주여 나왔나이다.
주님앞에 나와
무릎꿇어 기도하나이다.
오, 주님의 자비 기도하며
주께 나왔나이다.

또한, 이 미국노래를 우리말로 옮겨보면 대략 이렇다.

-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장차 승리하리라.
오, 내 마음속 깊이 나는 꼭 믿고 있네,
우리 장차 승리할 것을.

그런데 이 미국노래는 우리나라의 방송전과를 탈 수 없게 되었다. 이 미국노래는 그 내용이 <사회저항>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방송은 물론 공연이 금지된다. 이러다가 보면 헨델의 Laudate Dominum(성가곡...공동체 성가 155 주 찬미하라, 일반곡...응원이 승리의 노래 "보아라 용사 돌아온다")도 언젠가는... 클세다.

숲 정 이 산책



힘있는 토끼로 기를시다!

□사제 양성 후원을 위한
사순절 성금 운동을 시작하며④



상원아, 신학교는 좋은 곳이다!

정 양 현

내가 그곳에 가게 된 동기는 공소 신자들을 위해 매년 방학중에 신학생을 파견하여 신자 재교육을 실시하는 본당 방침에 의해서였다. 나는 이번에 그곳에서 일주일간을 지냈는데 그곳은 음성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교통은 별로 좋지 못한 곳이지만 반면에 그분들이 살기에는 아주 적당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도 하였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겠지만, 내게 있어서도 나환자들에 대한 인식은 별로 좋은것은 아니어서 그곳에 간다는 것이 약간 망설여지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상당한 호기심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것은 순전히 다미안 신부님 전기를 읽었던 탓이기도 했다. 보좌 신부님의 소개로 회장님과 처음 악수를 나눌때 느끼는 섬찟했지만, 저녁에 있었던 환영의 술자리에서는 나는 벌써 그들과 친숙해져 있었다. 본래 나는 음식을 가리지 않는지라 그분들이 주는 음식에는 조금도 개의치 않은채 나는 어느새 허리끈이 풀려져 있었고 취기가 열광에 흥진히 피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서 두 주먹을 꼭 쥐고 그들과 함께 진실되게 살아 보리라 작정했다.

한정된 시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 나는 생가지도와 교리를 시작했다. 우선 오전에는 가정방문을 하고, 오후에는 어린이와 학생들과 시간을 가졌고, 저녁에는 어른들과 생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나는 가정방문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그것은 내가 직접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다미안 신부님을 찾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였다.

첫날을 지내고 난 후 나는 그들이 과거에 내가 생각하였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점점 완쾌되거나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상태의 환자들로서, 몇몇 교령자와 특별히 심하게 앓았던 소수의 환자들 외에는 전혀 의외로로는 나병 증세가 나타나 있지 않았으며, 건강한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비감염자들보다 더 좋은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요동을 못하는 중환자들을 철저히 방문해야만 되겠다고 생각하고, 어린이 교리를 담당하고 있던 신실깊은 마리아라는 분과 함께 약2km를 걸어, 다른 정착촌을 방문하게 되었다. 가는 길은 (그분들이 생업으로 삼고 있는) 닭의 분비물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내가 생각하고 찾아보려 했던 중환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분들은 70세의 할아

버지와 할머니였다. 두분은 열심히 일해서 비교적 잘살고 있었는데, 슬하에 자녀들은 없어도 서로 의종계 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치료가 빨라 거의 다 완쾌된 상태였지만, 할머니는 몸씨 얼굴이 흉해 있어서 병세가 심함을 금방 알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냉담을 하고 있으며 할머니는 지금도 열심히 성당에 다니고 있었다. 그때 나의 뇌리에 스치는 것은 「몸이 깨끗해진 사람은 열 사람이 아니었느냐? 아홉은 어디 갔느냐?」 하신 예수님 말씀이었다. 그래서 나는 자연히 「할아버지는 건강하신데 왜 성당에 나가지 않아요?」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내가 정성들여 약을 먹었고 내 건강을 내가 돌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소 그런데 저 할망구는 성당에 다니면 병이 다 나을줄 알고 성당에만 열심히 다니더니...」 그말을 듣고 나는 분명히 할말이 있고 해야될 말이 있었을 터인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할머니만 연신 쳐다 볼 수 밖에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약을 잘 잡아주셔서 병이 나았으면 약을 일정하게 복용케 하며 진로해 주신 의사 선생님, 또 더 나아가 약을 발견하고 만들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하셔야 하고,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질으로 도와주신 분들과 특히 할머니께 고마움을 느껴야만 됩니다. 인간은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건강하시니 이제 할아버지께서 건강치 못한 사람들을 도와 주셔야할 차례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도 할아버지의 병을 고쳐주신것은 다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라고

그 할머니는 당신 자신의 몸씨가 좋하시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바로 앉으시라고 권유해도 자꾸만 돌아 앉으셔서 사과를 잡아 주셨는데, 할머니의 그 모습이 눈물을 자꾸 흐르게 하는 바람에 나는 무겁던 발걸음이 조금씩 가벼워 지고 있음을 느꼈다.

4월에 결혼하신다면 마리아씨 부디 행복한 가정생활 이루십시오. 그리고 새로 회장님이 되신 안당씨와 자모 회장님, 그리고 청년 회원들, 또한 여러 신자분들 건강하십시오!

상원아! 신학교는 좋은 곳이다. 열심히 기도하자.

(김제본당, 광주 대진 신학대학 3학년)

□설계·감리 허가수속□ 하느님의 성전과 교형자매들의



보금자리 건축상담 환영!!!

신원 건축 연구소

1 급 건축사

김 철 수 (금주(연))

☆ 전주 가톨릭센터 220호실

전화3-7780, 3-(야간)1449

빛과 소금이 되시오! (교리교사출신 우대)

4·5급 공무원(주·야간)

〈행정·검찰·세무·경찰·3사 은행반〉

이리역전 신탁은행 3·4층(☎ 5943·8629)

이리 경 문 학 원

원장 한 정 상



안중근(토마스)義士의 「어머님전 상서」

—사순절에 읽는 유서, 그 어머니와 그 신부

「예수를 찬미합니다.

불초는 감히 한 말씀 어머니께 올리려 합니다. 없드려 바라옵건대 저의 막심한 불효와 조석으로 문안을 드리지 못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사랑을 이기지 못하고 이 불효자를 너무나 생각해 주시니 후일 영원(靈源)의 천당에서 만나뵈울것을 바라오며 또 기도하옵니다. 이 현세의 일이야말로 주님의 뜻에 걸린바이오니 마음을 편안히 하옵기를 천단 부망할 뿐입니다.

6세된 장남 분도는 장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며, 희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잊지마시고 천주님께 바치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中略)

동네 어른은 물론 여러분께 문안드리지 못하오니 반드시 천주교를 진심 신앙하시어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뵈겠다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사는 정근(定根, 안중근의 아우)과 공근(恭根, 안중근의 아우)에게 들어주시옵고, 반드시 꼭 근심을 거두시옵고 마음 편안히 지내시옵소서.」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의 69주기가 되는 날이다. 안중근은 열네살되던 해에 황해도 신천에서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토마스」라는 세례명으로 불란서인 홍석구(Wilhelm Nicolas Joseph-marie)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은 만주 하르빈역에서 이등박문을 저격했다.

공판정에 선 안의사는 “이등을 죽인것은 결코 개인의 차격으로 취한 행위가 아니다. 대한제국의 의병 참모장장이 적과 싸우다 불행히 포로가 되었는데 여기서 나를 형사 피고인으로 다룬다는 것은 만부당한 일이 아닌가”고 역언하고도 당당하게 말했다 한다. 사형이 확정되고 상고(上告)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또 일본측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했었음) 안의사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의 비장한 전언(傳言)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새로이 밝혀졌다.

안의사에게 세례를 베풀고 평소에 그를 도와주었던 홍신부는 당시의 『조선교구장이던 뤼넬(閔) 주교로부터 정치문제에 관여하였다는 탓으로 정계의 처분을 받았었다. 이에 대하여 홍신부는 교황청에 다음과 같이 상소하여 승소하였다. -「주님께서 부르신 한 인간의 영혼을 위로한 것이 어떻게 정치문제일 수가 있는가. 종교문제와 정치문제의 한계는 밤으로 나타난 일만을 고려해서 판단한 일이 아니다. 나는 안도마가 그 나라에 대한 역적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를 찾았을 것이다. 하물며 그의 행위는 그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일이 불란서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그때에도 정계처분을 내렸을 것인가. 나는 안도마의 영세신부로서' 중부성사를 줄 의무를 가졌다」

안의사의 강장한 성품은 「엄격한 어머니의 가르침과 가톨릭신자로서의 깊은 신앙심에서 우러나온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 어머니에 그 아들(是母是子)이 그 신부임에 틀림없다. 안의사의 유서는 크리스찬의 자세 바로 그것이다. 안의사 탄신 100주년이 되는 사순절에 대하는 유서가 주는 감명이 너무나 크다.

요심이 (296) 김병오



교우들의 전당
(견습생 구합, 16세~18세 미만)
스타 사진관
전주시 고사동(동아여관) 앞
전화 ③ 6094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열(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파티마의상실
최 춘 자(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3가 28번지
(구라과 제과점 옆)
전화 ② 6219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석, 보로
문화양행
오 중 원(아오스딩)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③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금·은·보석·시계
교우들의 연말 연시 선물은
황시계점으로
황 의 성(아오스딩)
□전주시 서노송동 646 육교옆
☎ ③ 3252

★양심을 찾자★
현대칼라 특약점
카메라 대여 학교앨범 각종 사진 출사
중앙 사진관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고 입구 전화 7901
한 원 규 (야고버)

주단·포목 혼수 이불감 도산매
유진상회
구시장 보화당 앞
이리시 인화동 1가 84
장 완 태(바오로)
전화 : 5821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오늘은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특별헌금을 하는 날입니다
※ 지난 3월 30일<금>에 특별 단식한 뜻은 물론, 형제자매의 사랑의 정성을 주십시오
 2. 혼인문제 상담일...3일<화> 오전 10시~오후 4시, 교구청에서
 3. 제 4 지구(전주시내 분당) 중·고등학생회 회장단 회의...오늘 오후 3시, 중앙성당
 4. 지성인을 위한 신앙강좌...19일<목>, 가톨릭센터
※ 주제...프래그머티즘의 문제점, ※장사...박도식 신부(광주 대전 신대 교수)
- ※ 前 덕진 전례 위원장 미국(이민강)에서 안부편지
Kap-Gyoon Jeon/4611 Edgewood/Dr. Lorain, OHIO 44053/U.S.A...아시는 분의 위로편지 부탁드립니다.
 사제양성 후원을 위한 사순절 성금운동...력의 하얀 토끼는 잘 크는가요?
 숲정이 편집실 전화봉기 성금, 감사합니다...전통 유식중 5천원

(중앙)

전화 ③3651 3651 주임 신부 서용복
3874 보좌 신부 정태현
사도 회장 이복석

1. 프란치스코 3회 : 1일<일> 오후 1시 30분
 2. 삼지회 : 1일<일> 오후 2시~5시
 3. 공소판공 : 3일<화>-간중공소, 4일<수>-용흥공소
 4. 어머니 : 5일<목> 오전 10시
 5. 성심부녀회 : 6일<금> 어머니 미사후
 6. 축성할 (8일 공식미사) 성지까지 가져 오세요
 7. 분당 부활 판공성사 일정
10일<화>-금암동·인후동, 11일<수>-진북동·경원동, 12일<목>-서노송동·중노송동, 13일<금>-고사동·태평동, 14일<토>-학생·기타
<고백성사시간 : 오후 3시~저녁 8시>
 8. 예수 부활 성가연습 : 2일<월> 부터
 9. 제21대 중·고등 학생회 : 춘계 소풍결 신일성 환영회
일시 : 1979년 4월 8일, 장소 : 신리 수원지
- 지난주 봉헌금 : 223,910원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박종익
사도 회장 김성복

1. 애령회와 학생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후
 2. 청년회 모임 : 오늘 10~17시까지 분당에서
 3. 공소판공성사
양정리 공소-2일<월>, 황윤리 공소-3일<화>, 신교리 공소-4일<수>, 신원리 공소-6일<금>
 4. 분당 사무감사 : 4월 5일<식목일>
 5. 제 2 차 성령세미나 : 주제-①(3. 30) 성령의 능력, ②(4. 6)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 ③(4. 13) 인간과 구원과 치유(계속) 영령은 세미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회에 있는 것이다.
※ 토요 성령 기도회 : 매주<토> 오후 8시, 많은 참석 바랍니다
 6. 부활주일 성가연습 : 4월 3일부터 매일저녁 8시
 7. 대학생 모임시간 변경 : 매주<월> 6시 30분
- 지난주 봉헌금 : 87,96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전종복
사도 회장 유제삼

1. 부활 영세자 특별교리 : 4월 5·6·7·9·10일 저녁 8시
 2. 분당 판공일정 : 9일부터 13일까지
덕진·금암·송천·팔복
 3. 진복회 회원님들 1시간전에 오셔서 전례 협조 바랍니다
 4. 8일은 성지주일입니다
7일 5시 30분 미사는 없음, 주일 공식미사도
 5. 공소판공 : 전당리-4월 2·3일
- 지난주 봉헌금 : 47,795원 교무금 : 139,350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조성훈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 미사후
2. 주교님 미사 : 다음주 공식미사(성지주일) 10시 30분
3. 부활판공성사 : 6일-다가동·태평동, 7일-진북동·고사동·중앙동, 8일-학생·지정인, 9일-원산동·화산동, 성사시간-저녁 7시 미사후 참회예절·성사
4. 청년회 : 매주<토> 오후 6시,
건전한 노래부르기 매주<토> 오후 5시
5. 학생회 월례회 : 4월 1일 9시 학생 미사후
6. 복자 부녀회 월례회 : 4월 4일<수> 오전 10시

7. 확인지도 : 4월 4일 오전 10시
(사도회원님 각단체장 많은 참석 바랍니다)
 8. 애령회 2만원 회사 : 다가동 2가 이 마리아 상가집
- 지난주 봉헌금 : 203,885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활인규

1. 사도회 : 주일 10시 미사후
 2. 수요일 기도회 : 4일 저녁 8시
 3. 공소방문 및 판공 : 4월 2일 오후 2시-광곡리 3일 12시-석구리, 3일 저녁-마음리
 4. 분당판공성사 : 5일-1~6번, 6일-7번~12번, 7일-13번·기타반 및 학생·직장인
※ 성사시간 오후 1시~10시, 교무금및 신축헌금 완납 바랍니다
 5. 사제관 신축금 자진 신일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62,99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 미사후
 2. 부녀회 월례회 및 누갈다 모지 참배 : 4월 7일<토>
 3. 유희회장 김은홍씨 사일 후일 정주복 선생님
 4. 학생회 소식 : 토요일 학생미사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5. 미사시간 변경 : 주일-6시·공식미사 10시·주일 학생미사 오후 3시·오후 7시 30분, 평일-아침 6시·오후 7시 30분
- 지난주 봉헌금 : 153,73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익
보좌 신부 김기유
사도 회장 유석중

- ※ 사순 제 5 주 : 인성회 주간
 1. 사도회 : 저녁 미사후
 2. 유아세례 : 2시 미사후
 3. 가정방문 : 풍남동
 4. 판공성사 : 4월 9일~14일(성주간)
 5. 미사시간 변경 : 새벽미사-5시반, 저녁미사-7시반
 6. 감사합니다 : 중·고생 운동기구(5만원), 영광설(바오로)
- ※ 사순절 희생금 : 36,785원
 지난주 봉헌금 : 198,815원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 신부 문정현
사도 회장 채수현

1. 사도회 및 구역장 회의 : 오늘 공식 미사후
 2. 부활판공 : 분당 5·6·7일 오전 9시~12시, 오후 3시~5시 분당에 오셔서 성사표를 받아 성사를 보세요
 3. 공소 방문 및 판공 : 4월 2일(돌꼭지 공소)
 4. 부녀회 : 오늘 공식 미사후
 5. 바오로회 : 다음주일(8일) 공식 미사후
 6. 젊은 여성의 모임 : 4월 20일<금> 오후 7시 30분
 7. 성령 기도회 : 매주<수> 오후 7시
 8. 성자방문 : 3일(금주만 앞당겼습니다)
 9. 성지주일 : 다음주일(8일) 성지 축성이 있습니다
 10. 한식 연미사 : 연평을 위한 한식날 연미사(6일 오전 10시) (미사 예물은 분당 사무실로)
 11. 주일학교 교재 : 4월 1일부터 특별교재로 교리를 하게 됩니다. 매달 한번 부모의 가정통신도 있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 52,750원